

최근 의 국제정세는 세계의 주요 지도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동부 유럽의 국가들이 소련이라는 카드를 내던질 것이라고 미국의 어떤 지도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방위산업과 東西 긴장

아이러니하게도 베를린 장벽이 개방된 같은 시기에 미국 유수의 방산업체인 Martin Marietta사와 스위스의 Oerikon사는 방공대전차장비(Air Defense Anti-Tank System, ADATS)를 발표하였다.

미국의 방산업체 지도자들은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로 미국과 동맹국 업체들이 설계제작한 고도기술 장비들이 식료품 캔으로 변할 것인지의 여부와 고도장비의 대부분이 새로운 평화를 보장해주는 전쟁억지력으로서 채택될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불행스러운 것이다. 한 주요 미국 첩보전문가는 불행스런 일이지만, 미국과 동맹국의 방산업체들이 앞으로도 무기제조를 계속 유지해야만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비록 지금보다 더욱 우호적인 동서관계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및 나토간에 군사적 균형이 숫적인 면에서 축소되더라도, 전쟁을 야기시킬 개발도상국들의 문제들을 말소시킬 방법이 없음을 밝혔다.

제3세계에 대한 무기판매는 향후 10여년간에 걸쳐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소련과 중국은 각각 세계 무기수출의 1위와 5위국이다. 페레스트로이카가 다른 수출품목을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제3세계 무기시장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소련이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할수는 없다.

더구나 중국은 자국의 무기를 계속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현찰로 수출할수 있는 중국의 유용한 수출품목이다. 중국은 무기수출 대금으로 기초수입품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 못지않게 무기의 기술진보에 둔감하다. 최근 어떤 약소국가가 획득한 가장 근대적인 무기는 M-16 소총이었다. 그러나 현재 바로 이 나라가 쉽게 F-16 Falcon 전투기를 공동생산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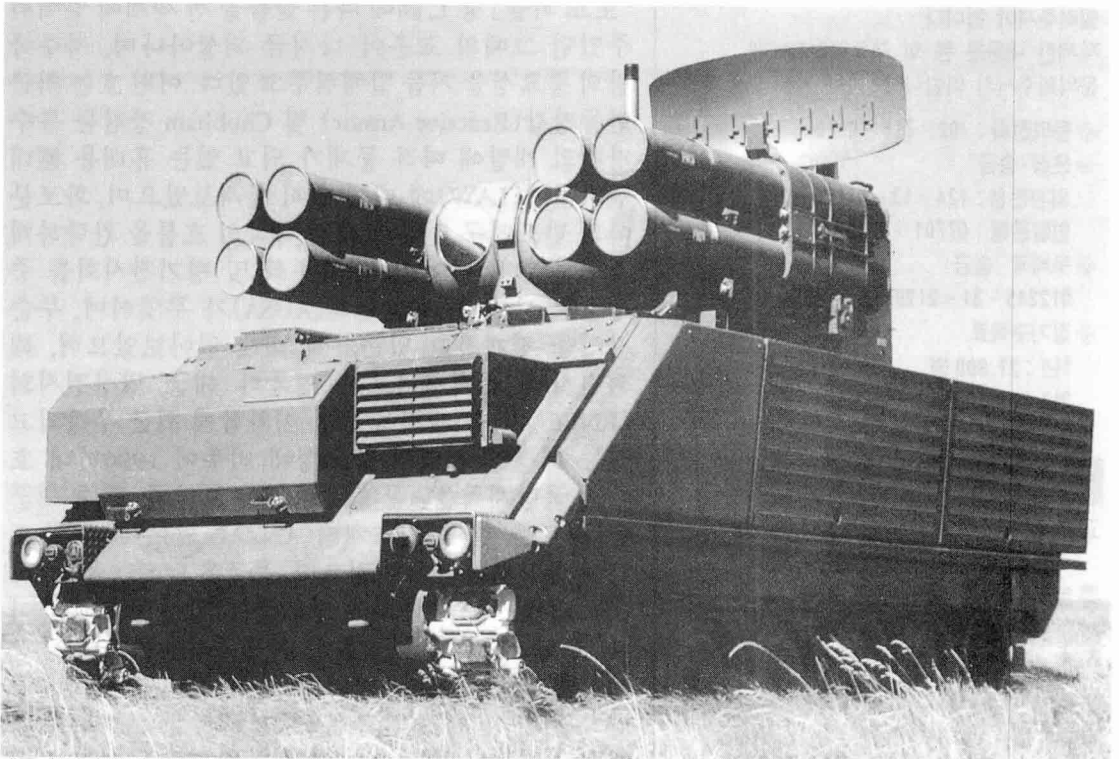
대부분의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개발도상지역에 있는 국가들이거나 단체들이다. 예를 들면 중앙아메리카의 니카라과아, 중동의 리비아, 시리아,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테러주의자와 아프리카의 앙골라,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극단주의자들이다.

여기에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군비경쟁, 이디오피아와 소말리아간의 투쟁, 산살바도르의 전쟁, 캄보디아 분규는 군사장비 구매에 연간 수천억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가들은 전쟁억지력으로서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밀무기에 대한 욕구증가가 항상 있다. 각국은 보다 현대화된 무기로 증강될 것이며, 앞으로는 약소국가들도 다른나라를 손상시킬 치명적인 장비를 충분히 보유할 것이다.

유럽에서 평화나 안정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소련과 중국의 세계 각국에 대한 무기판매는 확대될 것이다. 사실상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동서분쟁은 지역적인 군비경쟁이나 혹은 불균형 확대나 남북간의 적대감으로 바뀔 수도 있다.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분규와 같은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10여년간 이상 평화를 유지시켜 왔던 군사력 균형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그들의 약속의 불이행은 자살이라는 한 형태가 될 것이며, 또한 소련에서 반고르바초프 강경세력에게 서방측이 개발도상지역에서 군사적으로 우세할수 있다고 믿을



베를린 장벽이 개방된 같은 시기에 미국의 Martin Marietta사와 스위스 Oerikon사는 ADATS 장비를 발표하였다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것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추방을 야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또 미국 대외정책가들이 이런 함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 방산업체 지도자들은 산업동원체제 해제의 가능성을 기피하여 왔다.

소련의 감축발표에도 불구하고, 세계도처에서 소련 무기의 중요한 감축은 없었다. 백악관은 모스크바로 하여금 비무장화의 가치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광범위한 산업기반의 약화를 부추기지 않을 것이다.

최 근 Hughes 항공사의 전문경영인인 맬컴 커리 박사와 Hartin Marietta사의 Norm Augustine과 같은 방산업체의 고위 경영자들은 미래의 미국 방산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들 논의로부터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방위산업이 해마다 예산제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다임무와 다용도(상업 및 군사) 장비와 플랫폼의 개발(이것은 주로 비용효과적인 면이 있다), 공격특성 보다 방어특성에 중점(이 방어특성은 장차의 무기로 제조될 수 있다)을 돕으로써, 증대된 대중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방위」, 「전쟁억지력」, 「반격」 등의 낱말은 무기판매에 도덕적인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면허생산과 기타 다른 이유로 무기의 제작이나 수출을 금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단어들 이 함유한 뜻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독재군주나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을 회피하고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폭력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질 때 까지는 미국과 동맹국 방위산업자들 주위에 많은 합법성이 있을 것이다. * <Miltech 90/2>